

경기 불안정과 효율적인 양계업 경영

본고는 지난 2월 19일~20일 2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마니욱총 주치로 열린 제16회 종계 경영자 세미나에서 한국 농촌경제연구소 유철호 박사가 발표한 「경기 불안정과 효율적인 양계업 경영」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

1. 서론

양계산물은 다른 축종에 비하여 생산기간이 짧고 사육가들이 개별적인 계절적 수요를 예상한 생산·출하로 시장 출하물량의 조절이 어려워 연중 가격변동이 빈번하고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며, 이에 따라 양계농가의 소득불안정 문제가 고질화 되어 왔다. 특히 육계생산에 있어서 가격변동은 채란부문에 비하여 심하기 때문에 개별 생산단계 생산자들이 전체 수급조절을 위한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가격불안정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업이 전기업 추세로 점차 바뀌면서 소규모 양축가들의 탈락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생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의 계열화사업의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황 및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양계산업 안정화를 위한 계열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2. 양계산물의 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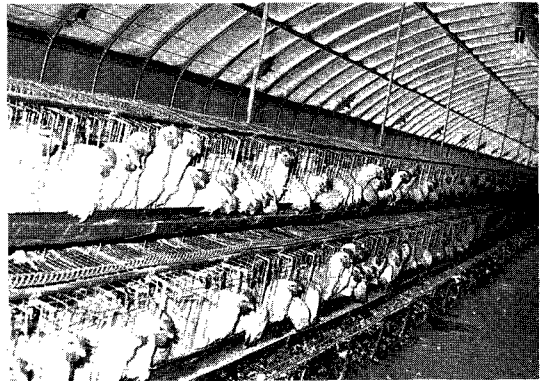
1991년도 양계산물의 총생산액은 8,745억원으로 축산물 총생산액 43,950억원의 20.1%를 차지하였다. 이 중 닭생산액은 5,064억원, 계란생산액 3,682억원으로 각각 양계산물 생산액의 58%, 42%였다.

과거 10년 1981~1991년간 양계산물의 생산액의 변동 추세를 보면 1981년 3,916.2 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 6,836.2억원에 이르렀으나, 1988년에는 전년 대비 양계 사물의 총생산액의 감소하였다. 이는 닭생산액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또한 1988년에는 양계 생산액중 닭고기 생산액이 계란 생산액보다 낮았는데, 1988년을 제외하고 1991년까지 닭 생산액이 총 양계산물의 생산액중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54%~62% 수준이었다.

총사육수수는 1981~1991년간 43백만수에서 73백만수로(산란계 44백만수, 육계 24백만수 등)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중 총사육가구수 628천호에서 188천호로 크게 감소되었다. 사육 가구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19수를 사육하는 농가가 90%이상으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모 사육두수비중은 그동안 6% 수준에서 1% 감소하였고, 산란계와 육계 모두 5천수 이상 사육규모가 사육농가수나 사육수수비중이 높아져 왔고 규모화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양계산물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1991년 닭고기 4.8kg, 계란이 9.8kg으로 1981년 대비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는 1.5배 가량 증가하였다. 다른 축산물의 소비량과 비교하면 육계소비량은 쇠고기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나 타육류에 비하여 안정적 소비성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비량을 몇개의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1992 추정치), 닭고기는 미국 36.6kg, 일본 13.2kg, 캐나다 23.8kg, 홍콩 27.7kg등



이고 계란소비는 한국 198개, 미국 186개, 일본 273개, 캐나다 157개, 홍콩 244개 등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양계산물의 소비도 선진외국처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예측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1년에 가서 닭고기 총소비량은 1991년의 178천톤에서 312천톤으로 1.8배, 계란 총소비량은 412천톤에서 623천톤으로 1.5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계산물의 가격은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변동이 빈번하고 가격변동 진폭이 크며, 가격변동은 계절주기를 보여 온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육계는 소비의 계절성, 타육류의 가격변동에 따른 대체성 등으로 산지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1989~1990년 다시 상승세에서 그 이후 하락세를 다시 보이는 등 산지가격 등락은 계속되어 왔다.

양계산물의 생산비를 보면(축협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 1992), 육계생체 1kg당 생산비는 998원이고 비목구성비를 보면 가축비 19.2%, 사료비 55.7%이다. 계란의 생산

비는 495원(10개)으로 가축비 22.2%, 사료비 55.9%로 양계산물의 주요비용은 가축비와 사료비이다.

3. 정부정책과 대책

지금까지 정부의 다각적인 양계산업 안정 대책과 양계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계산업의 기반은 취약하고, 특히 축산물 수입개방계획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난황에 이어 금년에는 냉장통닭이 수입 자유화되고, 내년에는 냉장 절단 닭고기가 개방된다.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국내양계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생산비가 외국의 생산비와 국내수입까지 여러가지 비용합계보다 낮도록 국내 생산비 절감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고, 우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질 개발과 고급화, 외국의 양계산물과 비교하여 생산가공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처리를 포함한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육계생산비는 닭고기 수출국인 미국이나 태국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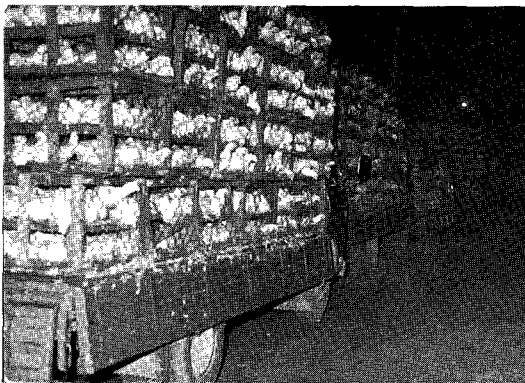
높고,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비가 현재보다 25%가량 절감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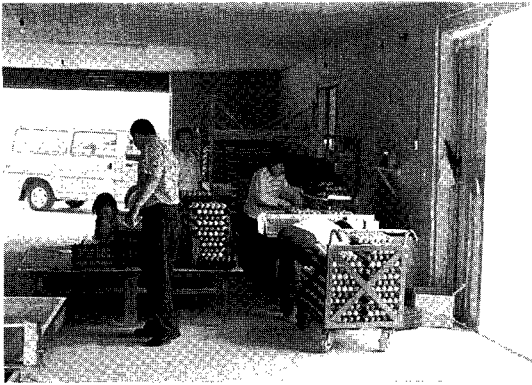
그 방안으로 초생추대의 절감(국산종계 개발과 염가보급, 종계의 생산성 향상, 종계장·부화장의 전문화 등), 사료비 절감을(사료구입 비용절감, 사료효율향상 등), 인건비 절감(규모화, 시설자동화 등)으로 미국 닭고기 생산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생산비를 인하할 수 있다하고, 닭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래닭을 이용하여 육질 고급화함으로써, “외국으로 부터 아무리 싼 값으로 닭고기가 수입되어도 소비가 되지 않도록”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전업규모의 양계농가의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사업, 계열화사업 지원, 양계단지 조성사업, 축사시설 개선, 닭개량 목표의 설정과 생산성 제고, 종계수입 병아리 생산조절 기능 강화로 가격 및 수급 안정 유도, 유통 및 소비홍보 강화로 소비기반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양계 계열화사업의 중요성과 효과

정부대책중에서 특히 계열화사업은 8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추진하여도 사업으로 이 사업의 정착이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양계산업 계열화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계열주체에 의하여 보다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계열





화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는 가격 및 소득안정이다.

지금까지 육계가격 불안정 문제는 육계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주요가격의 불안정요인은 생산부문에 있어서 규모의 영세성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개별적인 수요 및 출하시 가격판단의 착오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유발되는 가격의 변동은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가격 불안정의 요인이 늘 있게 마련이었다.

계열화사업이 정착되면 계열주체들은 판매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매량의 증대나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에 의한 시장개척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육계는 계약사육형태 등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어 계열주체들이 시장개척과 사육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왜 계열화 사업이 가격 또는 소득안정에도움이 되느냐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계약형태에서도 알 수 있다. 단순히 사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육농가들은 계열주체로부터 계약에 의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고 여러가지 사육관리지도를 받아가며, 사육후 계열주체에 육계를 인계하여 계열농가는 사육 수수료, 즉 사육시 투입된 노동과 계사 이용 등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 또다른 형태는 계열주체와 상이한 가격을 설정하여 출하시 육계시세가 상한가격보다 높을 때는 상한가격, 하한가격을 밑돌 때는 하한가격을 받는다. 이 경우 계열주체는 계약농가에게 병아리 등을 대체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사육지도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경험해 온 극심한 가격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육계생산비 절감과 이로 인한 소비자가격의 절하유도이다.

계열주체가 추구하는 것은 경영합리화에 의한 비용의 최소화 또는 이윤의 극대화이다. 따라서 계열주체는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생산분야 제품의 생산비 인하를 꾸준히 추구하게 마련이고 계열주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사료 및 방제약품의 대량조달계약에 의하여 공급측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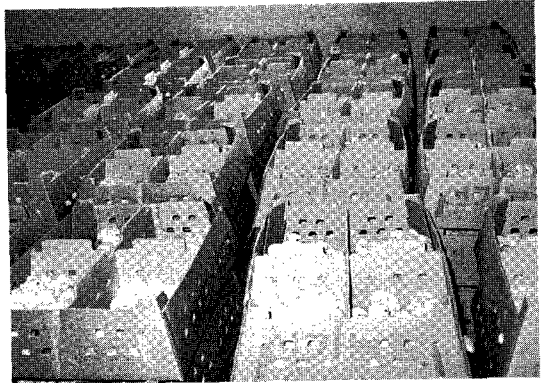


로 부터 상당한 할인혜택을 받아 최종제품이 생산비 인하를 꾸준히 추구하게 된다. 사육농가들은 주어진 단위 생체중량당 사육수수료를 받는다는 계약하에서 주어진 노동이나 기타 생산지원을 보다 효율적 이용에 의하여 사육수수를 되도록 늘려, 즉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총수수료 수입을 크게하려 할 것이다.

이에따라 계열 주체들은 필요물량의 확보에 있어서 수집비용과 도계형태 및 가공제품 생산에 있어서 시설이용을 증대 등으로 총체적인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현재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들의 사육규모는 우리나라 평균 사육규모보다 월등히 크며, 계열주체로부터 체계적인 사육관리지도와 규모의 대형화로 생산비 절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계열화사업이 진척되면 사육규모 확대가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여타 생산단계에서도 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비 절하가 기대된다.

계열화사업 정착에 의하여 생산비 인하가 이루어지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져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증가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수요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도 제품가격 인하가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육계의 수입개방 문제가 외국의 압력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비하여 계열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계열화사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비계열농가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육계를 생산



하고 있어 우리 육계업계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수입개방에도 버티고 오히려 외국에 수출가능성도 있어 수출촉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셋째는 계열주체의 의한 판촉활동의 강화로 다양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소비저변의 확대이다.

축산물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육계소비 증가율은 다른 축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육계분야는 앞으로 특히, 외국에서처럼 건강상 이유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새로운 제품 개발로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육계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가공제품의 개발로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육계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가공제품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 판매점이 육계소비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기상품의 판매 확충을 위해 자기상품의 상표선전이나 여러가지 대중전달매체 이용 등 과거에 비하여 활발한 판촉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계 산물 특히, 육계제품 소비확충은 전문판매업체에 의하여 주도될 것으로 보여지며, 점차적으로 이들간의 시장쟁탈을 위하여 새로운 계육가공 제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소비자변의 확대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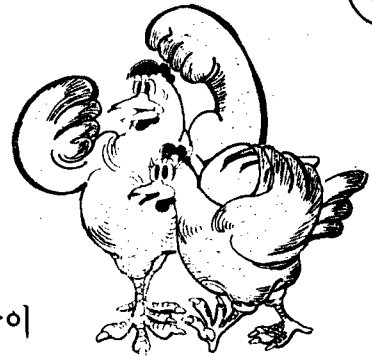
넷째는 계열화사업 정착은 유통부조리 제거에 기여하게 된다.

육계유통에 있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

격 차이가 높게 유지되고, 특히 가격이 산지가격의 변동에 너무 둔감하여 사육농가들은 피해를 보고 중간상인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과 밀도계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도계유통사례는 오랫동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계열주체들에게는 생산에서 제품의 판매까지 거의 모든 유통단계가 업체의 생산활동이다. 따라서 자기상품의 시장확보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가격인하에 역점을 두게 됨으로 유통개선문제는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다. **양계**

우량중추 선택이 농장성공의 열쇠



- 고객의 신뢰속에 우량중추만을 생산해온 무지개농장이
- 초현대식 시설의 무창 자동화 중추계사를 신축,
- 국내 중추업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지개농장

대표한기석

주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 170
TEL: (0334) 72-3322

- * 완전 주문생산제 실시
- * 완벽한 방역프로그램
- * 철저한 올인 올아웃
- * 무창, 유창계사 함께 운영